

전문가풀 회의 결과 보고서

I. 개요

1. 일시 : 2014년 11월 28일(금) 10:00-12:00

2. 장소 : 우리원 9층 회의실

3. 발표자 및 발표 주제

- 김양희 대구대 교수: “한-호주 FTA와 일-호주 FTA의 비교”
- 김규관 KIEP 일본팀장: “일본의 에너지 효율 분야 국제협력”

4. 참석자 (총: 10명)

- 원외(6명)

김광수(KOTRA 차장)

김양희(대구대 교수)

송성기(한일기술협력재단 이사)

오태현(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)

김기준(KOTRA 선진시장팀장, 읍저버)

서영경(IMP, 읍저버)

- 원내(4명)

정성춘(국제거시금융실 실장)

김규관(일본팀 팀장)

신민이(동남아팀 연구원)

이형근(동남아팀 전문연구원)

II. 주요 발표 내용

<한-호주 FTA와 일-호주 FTA의 비교>

- 한국이 일본보다 큰 폭으로 시장을 개방
 - 일본은 호주의 2대 교역국(수출 2위, 수입 3위), 한국은 호주의 4대 교역국(수출 3위, 수입 9위)으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대호주 협상력 우위
 - 양국의 총교역품 대상 10년내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 94.3%, 일본 88.4%이며 무역액 기준으로는 각각 94.6%, 93.7%임.
- 핵심 수입품목인 쇠고기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소폭 개방
 - 호주의 쇠고기수출국 중 한국은 3위(14%, 155천톤)인 반면 일본은 1위(16%, 293천톤)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협상력에서 열위에 처해 있음.
 - 한국의 대호주 쇠고기수입은 총농산물 수입의 31.3%를 점하는 최대 품목이며 이는 국내 수입산 쇠고기 시장의 55% 점유하는 반면 일본 내 호주산 쇠고기는 수입산 쇠고기 시장의 36% 점유(미국산 15%)로, 협상 시 이를 감안한 전략을 구사했어야 했음.
- 한-호주 FTA는 국내 제조업체의 대호주 수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농수산업 특히 축산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
- 정부가 지난해 말 TPP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TPP 가입에 대비해 서둘러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함에 따라 오히려 이들에 대한 협상력을 저하시킨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

<일본의 에너지 효율 분야 국제협력>

- 한·일의 소비부문별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면, 일본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화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.
 - 일본에서의 에너지효율화는 제2차 오일쇼크 이후의 에너지사용의 합리화법 제정(1979년)과 Top Runner 제도 도입(1998년), 기업의 자발적 노력 등이 주요
- 일본의 에너지효율화 정책은 제2차 오일쇼크 이후 공급 측보다는 수요 측(에너지효율화산업구조 전환)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,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시간대별 전력요금의 차별화, 전력 수요량 억제의 정량적 관리 등 수요 측을 억제하는 demand response를 강조
- 일본에서 2014년 4월에 각의 결정된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효율* 사회의 실현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설정
 - * 일본에서는 ‘뜯에너지’라는 표현을 사용하나, 에너지절약(energy savings) 혹은 에너지 효율화(energy efficiency)를 의미함.
- 일본 정부는 에너지 수급구조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, 에너지관련 국제기구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
 - (다자) G8, G20, APEC 등의 국제포럼과, IEA, IAEA 등과 같은 사무국 기능을 갖춘 다자간 협력기구에 적극 참여
 - (양자) 자원·에너지 확보와 에너지 산업의 국제진출 지원→자원부국과 고효율화력발전, 원자력, 재생가능에너지, 에너지효율화 기술, smart community 등의 잠재시장국가와의 관계강화 모색. 특히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강화와 에너지수급구조에서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, 인도, 유럽 등을 협력국으로 지목

III. 주요 토론 내용

<한-호주 FTA와 일-호주 FTA의 비교>

- 양자간 FTA 비교분석 결과, 호주와 협상하는 데 있어 한국이 일본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협상을 체결함.
 - 한-호주 및 일-호주 농산품 수출 품목의 양허 수준을 비교하면, 한국은 냉동·냉장 쇠고기의 관세를 한-미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15년에 걸쳐 철폐하는 반면, 일본은 15~18년에 걸쳐 절반 수준으로 관세율을 인하함.
 - 한국은 앞서 한-미 FTA에서 '15년 내 철폐+ASG'로 양허하여 이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, 일본은 쇠고기 품목에서 호주의 수출 교역국 1위로서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자국에 유리하도록 인하율을 방어한 것으로 파악됨.
 - 세이프가드(SG) 발동요건이 어렵게 된 점도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.
 - <표3>을 보면, 일본은 TPP에서 미국과 쇠고기 품목에 대한 협상을 염두에 두고 관세 인하율을 절반까지 허용하는 마지노선을 설정, 이를 일-호주 FTA에 반영한 것으로 보임.
 - 협상력의 차이에 따라 한국에 비해 일본이 대응전략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임.
- 반면 일-호주 FTA 타결에 7년이 걸렸다는 점은 일본의 입장에서 별로 얻을 것이 없었다는 측면을 반증하는 것임.
- 한-호주 FTA에서 우리측 이득은 공산품 분야이며, 주로 자동차·전자 부문임.
 - 한국이 대호주 공산품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관세율을 즉시 철폐하도록

협상한 것은 일본과 동등한 경쟁여건을 확보한 측면에서 높이 평가함.

- 그러나 호주 내 자동차 제조업체는 2017년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임.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의 즉시철폐는 호주가 농산물 수출을 위한 협상카드의 성격이 강하므로, 이를 한국의 성공적 협상 결과로 제시하기는 곤란함.
- FTA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자동차, 전자 등 공산품의 대호주 수출 확대에 요약할 수 있음.
- 한편 지난 11월 15일 한-뉴질랜드 FTA 협상이 타결됐는데, 뉴질랜드는 이미 공산품의 관세를 징수하여 추후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해 공산품목의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없음.
 - 한-뉴질랜드 FTA 협상타결은 TPP를 고려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.
- 지금까지는 공산품이 중요한 협상 품목이었으나, 앞으로는 농산품의 개방도가 국내 농산시장 경쟁력 하락 문제 등을 야기하여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.

<일본의 에너지 효율 분야 국제협력>

- 발표자료 3페이지 그래프에 따르면, 일본의 전원별 발전전력량 구성에서 원자력이 2010년 28.6%에서 2012년 1.7%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현재 원자력 재가동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.
 -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내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었음. 11월 현재 상업용원자로는 48기가 있으며, 3기를 건설하고 있음.
 - 11월 7일 현재 가고시마현 사츠마센다이시(鹿児島県 薩摩川内市) 원전 재

가동이라는 정부방침에 대해 시장, 시의회, 주지사 등이 동의를 표명함에 따라 금년 재가동 목표의 달성 여부가 주목됨.

- 원자력 발전이 줄어들면서 총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, 석탄 등의 해외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.
- 현재 에너지 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, 일본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 /끝/